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서 발생한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1예

고려의대 내과 권순범, 박상수, 류옥현, 김민자

단순포진 감염은 가장 흔한 바이러스 감염질환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면역억제상태에서의 단순포진감염은 임상적으로 더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며 더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데 종양, 항암치료, 스테로이드 치료, 방사선 치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증가함에 따라 그 기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증례는 48세 여자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로 내원 일주일 전 고열과 함께 우측 회음부에 동통을 동반한 궤양이 생겼으며 이후로 계속 악화되는 소견 보여 입원하였다. 환자의 우측 회음부 궤양은 비교적 뚜렷한 경계부를 가지고 있으며 삼출물을 보이고 있었고 우측 서혜부를 따라 질내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환자 구강 및 혀에서도 다발성의 궤양이 관찰되고 있었다. 회음부 궤양 병변 조직생검 및 구강, 회음부 도말 PCR 검사를 시행하여 1형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하고 일주일간 하루 총 30ml/kg의 고용량 Acyclovir를 투여하였다.

이후 궤양 병변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었고 발열 등의 전신적 증상도 호전됨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집먼지진드기로 감작한 Sprague-Dawley 백서에서 기도과민성의 발현

연세의대 내과 이재현\*, 권나영, 박중원, 홍천수

**배경** : 알레르겐에 의해 유도된 동물 천식 모델의 연구 중 집먼지진드기를 감작시켜 유도한 백서 천식 모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목적** : 사람에서 외인성천식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진 집먼지진드기를 감작시킨 백서에서 기도과민성 발현의 유무 및 정도를 생리학적, 병리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방법** : Sprague-Dawley 백서(이하 SD 백서) 12마리를 대조군과 실험군 A, B, C(각 3마리)로 나누고 실험군에는 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 조항원을 각각 500 ug (A), 100 ug (B), 50 ug (C)을 1% Alum solution과 함께 복강내로 2회 주사하여 감작시키고, 2주 뒤 백서의 기관 및 폐조직을 얻어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조항원 접촉 전과 감작 후 2주일에 Methacholine 유발검사를 시행하고 일실체적변동기록기를 이용한 Penh 측정을 통해 기도저항의 발생여부를 평가하였다.

**결과** : 실험군 A, B에서 Methacholine 유발검사상 기도과민성이 유도되었으며 이들 백서의 폐조직검사에서 대조군과 달리 세기관지 주변에서 뚜렷한 호산구침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 SD 백서에서 집먼지진드기 조항원의 복강내 접종만으로 기도과민성이 유도되고 폐조직내 호산구 침윤이 됨을 관찰하였으며 향후 항원유발검사 및 기관지폐포세척 등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